

불자들, '한국SGI 어떻게 봐야하나?' 궁금증 확산

겉모습은 불교, 속은 反불교 反민족적

1900여개 국가에 지부 건설, 전세계 대학 명예박사·명예교수 1747명, 국가훈장 23개, 명예시민증 4077개. SGI 이케다 회장이지난 45년간 세계 각국을 누비며 올린 성과다. 실로 엄청난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120만에 달하는 신도와 전국에 세워진 3000여개의 문화회관, 전국을 35개 방면(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11개 권(지역)으로 세분화해 구성된 조직은 매

우 탄탄하다. 특히 관공유포(불교의 포교 개념, 이하 광포)의 핵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대학생 신도 역시 각 대학마다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불교 어떤 종단에도 뒤쳐지지 않는 조직 현황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한국SGI 주최 '2005 나라사랑 대축제' 가 열렸다. 이 대회가 알려지지 않은 불자들이 한국SGI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한국SGI는 겉으로는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속은 반불교적인 교의와 반민족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불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교조(敎祖)에 있어서 석가모니를 대신 니치렌(日蓮, 1222~1282)을 받들고 있다. 오히려 니치렌을 석가모니보다 우위에 놓는 신앙형태다. "나무묘법연화경 일련"을 본준으로 하고 석가불과 다보불이 협시로 배제한 이들의 '만다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이 만다라에는 일본의 신사(神社)에서나 볼 수 있는 개국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기아를 침공한 장수를 보살로 격상시킨 하지무 보사츠(八幡菩薩)가 포함돼 있는 점은 한국의 정서 보다는 일본의 정서에 가까움을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이 만다라를 문화회관의 동쪽 벽에 걸고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東方遙拜)를 올리고 있는 점은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는 요소다.

한국SGI가 간행한 <법편품·수량품 해설집에서도 불교를 왜곡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대성인(니치렌)은 불이다. 그 위(位)는 석가 등이 도저히 미칠 바가 아니다. 말법에 출현하신 분불(佛)이다"며 불교를 폄하·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 '법편품'의 '법화경만이 진실교'라는 구절을 인용해 석가모니불의 교설이 하근기에 맞춰 설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시키고 있다.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3대 SGI 회장은 그의 저서 <불교사관을 말한다>에서 "출가와 재가는 동등하다" "재가의 몸이라도 공양을 받을 수 있다" "사원과 회관(SGI 집회장소)은 동등하다" "나는 생불이다" 등의 가르침을 퍼 일본불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한국의 불교를 폄하하고 있다. '남묘법연화경'을 인용하는 '제복봉장'이라는 수행방법은 궤변에 가깝다. SGI에서는 나무묘법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인 '남묘법연화경'만이 불법의 진수요 심장이며 모든 중생을 성불케 하는 근원종이라고 가르친다. 인도식 표현인 'saddharma pundarika sutra' 나 한국식 발음인 '나무묘법연화경'으로 봉창하는 것은 공덕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GI는 절복, 승려, 광포, 진격 등 공격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SGI가 즐겨쓰는 절복은, 본래 스스로의 삼

“선수행자는 마귀, 염불하면 지옥간다” 불교수행법 비하 가야 침공한 장수 ‘보살’로 격상...만다라 걸고 日 향해 절 거대 자본 동원 평화·봉사활동 벌이며 젊은신도 조직화

독심을 제어해 나고 죽음이 없는 무생법인을 이룬다는 의미이지만, SGI는 전통종교와 문화가치 등 자신을 사상 이외의 모든 것을 항복 받는다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모든 사상체계를 SGI의 가치로 바꾸는 광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확고하게 뿌리내린 한국SGI
한국SGI가 지난 30여 년간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체계적인 교육방식을 꼽는다. 젊은 신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향후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자원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한국 신도들이 일본 등지에서 수년간 교육을 받고 일선 광포현장으로 뛰어든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일꾼들을 '생산' 해내는 시

리가 결정된 상태다. 심지어 나주 동신대에는 한국SGI 관련 도서코너가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고, 시마네현이 독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때 한국SGI는 "독도는 우리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또 비핵평화운동은 물론 다양한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도 각 지역별로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신도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SGI의 성장 배경에 대해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는 "SGI의 활동방식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회성'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민족정서에 잘 융화해 활동을 하다보니 신도수가 기하



120만명의 신도를 확보한만큼 성장한 SGI는 불교단체를 자처하지만 반불교·반민족적인 교의를 포함하고 있어 불교의 왜곡이 우려된다. 사진은 5월15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2005 나라사랑대축제'에 참가한 한국SGI 신도들. 사진=고영배 기자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불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 절실
한국SGI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왜곡된 불교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자들의 불교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불교'라며 "직접 와서 교리체계를 배우고 신앙 활동을 하게 되면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SGI를 연구해왔던 학자와 일부 스님들은 불교왜곡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SGI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을 위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불교계의 태도는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불교종단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은 한국SGI의 실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스님들과 실무자들이 실제 자체를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체로 현황을 알아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최광 스님도 "종단 차원에서 유사 불교와 신종 종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인적·물적 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15일 한국SGI가 개최한 '2005 나라사랑 대축제'가 보도(본지 제 527호 1면)된 후 이제라도 한국SGI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현황 파악,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화담정사 조실 혜경 스님은 "30여 년간의 활동으로 100만명이 넘는 신도를 확보하고 하루가 다르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한국SGI의 불교 왜곡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리지 못하는 한국불교계의 현실이 한도들을 김모씨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국SGI 신도인 유희성(37세)은 "법화경을 근본경전으로 하고 있는 SGI야말로 정통

日 승려 '니치렌'이 교조

SGI는? SGI는 Soka Gakkai International(국제장가학회)의 약칭이다.

SGI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승려였던 니치렌이 완성한 민족주의와 사회개혁 성향의 법화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니치렌의 제자 니코(日興)가 이를 바탕으로 '일련본불론'을 주창해 일련정종을 세웠다. 일본 불교종단들의 일련정종에 대한 공격은 석가모니불을 본불로 하지 않는 '일련본불론'에서 비롯됐다.

1930년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1871~1944)가 결성한 장가학회는 다이세까지(大石寺)에 본산을 둔 일련정종의 재가신도단체였다. 그러나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이 이르러 세력이 커지면서 일련정종 국제센터 등과 결합한 SGI를 구성했고, 승단인 다이세까지와 결합해 독자적인 단체로서 종교활동을 펴고 있다.

SGI의 한국지부격인 한국SGI는 1975년 설립돼 '대승불교단체'를 자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SGI는 전국을 35개 방면(권역), 111개 권(지역)으로 나누어 그 밑에 지역, 지부, 지구, 반을 두어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같은 조직을 담당하는 간부가 7만명에 달하며, 문화회관은 전국 300여곳에 건립돼 있다.

박봉영·유철주 기자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寺 조청**

- 산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산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寺 참뽕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산寺 청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시시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산寺 기혈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산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372-5721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 **산寺 조청원**

언해본·한문교재본 청허당 휴정 저음·일장 율리 | 신국판 | 값 8,000원

선가귀감 禪家龜鑑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다.
말없음으로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선이고 말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교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 스님께서 1564년 선의 진수와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이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자 지은 책이다. 50여 종류의 경론과 조사스님의 어록 가운데 요긴한 부분을 가려 뽑아 주해(註解)를 달고 송(송)과 평(評)들을 곁들여 완성한 저술로 일목로써 자신의 이치를 밝히고, 불조의 공덕과, 선과 교의 특징과 갈래, 공부 방법과 화두,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을 열거, 분별심을 쉬고 올바른 안목으로 수행의 경로를 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부유 선사의 언해본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하여 실고, 이어 교재용으로 묘향사판 한문본을 실었다. 한문본의 간단한 주해는 동산 스님의 주기(註記)이며, 아울러 화두선의 방법과 지침에 도움이 될 지침 선사의 선종결의집(禪宗決疑集)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덧붙였다.

일장 스님!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1958년 범어사에 입산하여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범어사, 송광사, 해인사, 불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修禪)하였다. 한 때 제주도 목부원 자활농장을 개간하며, 대중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한편 속생의 화업(勸業)으로 수많은 불사전(佛事殿)과 장학모금전에 동참하였다. 지금은 지리산 황태일에서 수행정진 중이며 편역서에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이 있다.

불교출판부

승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전승(02)420-3400 http://www.bulkwang.org